

## 제 13 회 중국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CN1068

한글 성명: 좌사원

나를 설레게 하는 길  
세상에 길은 천 갈래, 만 갈래가 있  
지만 내게 여전히 미련을 남기고 나를  
설레게 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뿐이다.  
그 길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 
반드시 거쳐야 하는 긴 비탈길이었다.  
길 양쪽에는 다양한 아침식사 가게와  
간식 가게가 많이 있었다. 지금 길 양  
쪽에 그때와는 다른 가게들이 성업 중인  
것을화로 걸으며 보고 있으면 옛 추억  
이 아스라히 떠오른다.  
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께서 나를 키  
우셨다. 부모님은 회사일로 바빴기 때문  
에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은 외  
할아버지께서 전담하셨다. 바람이 불어도  
비가 몰아쳐도 외할아버지는 아랑곳없이  
제시간에 자전거로 나를 학교까지 데려  
다 주셨다. 우리는 그 길목에서 아침에  
는 라면을, 하룻길에는 간식을 사먹곤  
했다.



# 제 13 회 중국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CN1068

하급 서명: 좌사원

외 할아버지께서 내내 나를 학교에 데  
려다 주셨던 초등학교 6년을 거치면서  
내가 깨달은 것은 변함없던 그 길과는  
대조적으로 점점 낡아가시던 외 할아버지  
의 모습이 없다. 자전거 뒷좌석에서 나는  
비탈길에서도 발을 가볍게 구르시던 예  
전과는 달리 느릿느릿 힘겹게 앞으로  
페달을 밟으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. 꽃  
꽃한 등과까만 머리카락도 구부정한  
등과 하얀 머리카락으로 점점 바뀌어  
갔다.

그 비탈길은 나의 어린 시절과 외 할  
아버지와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을 담고  
있다. 나와 외 할아버지 둘만의 추억이다.  
길에서 자전거 뒷좌석에서 많은 나는  
외 할아버지께서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  
는 이야기 하며 재잘거렸다. 그리고 비가  
온 날에 나는 우산을 쓰고 외 할아버지  
의 머리 위로 번쩍 들었지만 힘이 약  
해서 우산이 바람에 이리저리 비뚤어졌다

총 4장 중 2 번째 페이지



## 제 13 회    중 국   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 - CN1068

하급 섹터: 좌사원

다. 집에 돌아오니 외할아버지와 모두  
 울독에 빠진 생쥐 같았다. 또 한번은  
 작 못해서 뒷타이어에 박이 안려 들어 껍  
 껍 울었 던 기억이 난다. 외할아버지가  
 나를 걱정하시어 즉시 자전거를 세우고  
 내 뺑에 상처가 없는지 세심하게 검사  
 하셨다. 다행히 신발은 두 겹고 뺑은 다  
 치지 않았지만 신발이 썩어서 전혀 신  
 을 수 없었다. 거듭 확인한 외할아버지  
 는 나를 끈질기게 달래다가 가장 가까  
 운 신발 가게에서 새 신발로 바꿔 신고  
 조심스레 태워 학교에 갔다.  
 아쉽게도 외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 
 는 졸업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.  
 나는 학교를 다닌다는 핑계로 매년 설  
 날에만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다. 그러던  
 어느 날,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아주 심  
 한 병에 걸리셨다. 외할아버지는 뵈러  
 병원에 가보니 외할아버지의 상황이 매  
 우 위중했다. 갇아둔 몸매와 푹 꺼진



## 제 13 회    중 국   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 - CN/1068

하급 서명: 좌사원

눈 애가 애처로웠고 몸 한 쪽이 아비 되셔  
 서 막 쓸 도 잊지 못 하셨다. 나는 외할아  
 버지의 그 때 관한 눈 두 덩이 겁나 외할  
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로 한 엄두도 못  
 냈다. 이윽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 
 때, 나는 학교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 
 지켜드리지도 못 했다. 이것이 지금까지  
 의 내 인생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일  
 이다.

외할아버지와 함께 한 그 세월은 뒤  
 로 한지 어느덧 9 년째, 지금 다시 그  
 길은 걸으니 옛 기억이 묵묵듯이 민레  
 온다. 길은 변함 없이 그대로 이젠 나  
 는 더 이상 예전 그대로 이지가 않다.  
 그 길은 나는 성례게 한다. 외할아버지  
 와의 즉거운 추억이 담고 있기 때문  
 이다.

